

다른 시민활동과의 관계에 따른 자원봉사참여 유형화와 영향·결과변수 검증에 대한 연구*

송 정 안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시민활동 참여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되는 자원봉사참여 유형의 수와 형태를 알아보고, 각 유형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정도와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서베이 2017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잠재계층모형(LCM)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참여 잠재계층은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투표 위주 자원봉사,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참여 정도는 참여 여부, 빈도, 향후 참여 의향 모두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잠재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인변수로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단체 참여 정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자원봉사 참여 환경에 대한 고려 속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논하고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자원봉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유형, 잠재계층

I. 서론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에 대한 접근은 무엇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는가 하는, 자원봉사에 국한된 영향 요인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시민참여활동은 다양성과 참여 기회 모든 면에서 확장되고 있다.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전체 시민참여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자원봉사 참여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원봉사 단독의 참여 여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다른 시민활동과 결합한 자원봉사활동의 현실적인 참여 양상을 유형화해보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정도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자원봉사는 전 세계에서 지난 삼사십년 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드라마틱한 위상 이동을 하였다. 사적인 자선이나 종교적 실천, 인도적 행동으로 실행되던 활동이 1980년대부터 공공복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1494).

지 재편,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새로운 시민성의 요구, 최근 SDGs로의 국제개발 패러다임 등의 거시적 질서의 변화를 타고 영미권, 유럽, 한국 등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European Commission, 2012; Homes, 2009; Inglehart, 2003; IVCO, 2017).

그런데 2008년 이래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17; 행정안전부, 2018). 이러한 정체·감소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먼저 1990년대 자원봉사 정책을 수립한 영미권 국가들도 경험해야 했던 현상이었다(Inglehart, 2003).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자원봉사 참여율이라는 정책적 난제가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많은 자원봉사 영향요인 연구들이 축적되었지만, 아쉽게도 자원봉사참여 환경과 자원봉사활동의 현실적 양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Wilson, 2012). 그간 자원봉사 영향요인 연구들이 간과한 부분은 개인이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양상이다. 특히, 그간 한국에서 급속하게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활동들과 시민참여정책들에 의해 한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는 자원봉사정책이나 시민사회 자원봉사섹터, 혹은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복잡다단한 참여환경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중첩되고 있다. 시민사회 생태계 내 존재하는 어떠한 시민참여활동도 고립적으로 성장·퇴화할 수 없는 환경(Anheier, 2010)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시민참여활동의 다양화와 참여 기회 증가로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다른 시민활동과의 관계 속에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다각화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율이 단순히 자원봉사 참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심층적으로 들어간, 다른 시민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원봉사활동의 현실적인 다양성과 다양성에 따른 참여 정도의 차이 문제는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자원봉사 영향요인 연구들을 보완하는 일고찰로서, '자원봉사 참여'라는 연구대상에 대해 접근하는 관점 자체를 달리해보고자 한다. 기존 자원봉사 영향요인 연구들이 자원봉사 참여를 '예/아니오'로 대별되는 단일한 실체로 간주했다면, 본 연구는 자원봉사참여를 다른 시민활동과 조합되어 실행되는 혼합 활동으로 바라본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자원봉사활동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자원봉사 참여 정도를 가져오고 참여 요인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이질적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금까지의 자원봉사 영향요인 연구들과 차별적인 사람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으로,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을 다른 시민참여활동과의 관계 속에 새롭게 유형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참여 유형에 자원봉사 참여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분해서 볼 것이며, 각 유형들이 자원봉사 참여 정도 미치는 영향의 결과 분석을 실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검토

1. 자원봉사 참여 환경 변화

자원봉사활동은 여러 국가들에서 정부, 기업, 학교, 비영리조직들에서 제도화되고 있다(Haski-Leventhal et al., 2009). 이러한 점은 영미권 국가들과 유럽, 국제기구들에서 공공복지 재편과 신자유주의 통치 맥락에서 나타난 모든 국가 구성원의 새로운 시민성(active or participatory citizenship) 형성 의제들이 빈번하게 자원봉사활동을 그 수단으로 언급하고 결국 1990년대 전에 없이 그리고 빠르게 공식적 제도화할 수 있었던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Cruikshank, 1999; Eliasoph, 2013). 최근에는 국제개발의 변화된 프레임, SDGs 담론에서 자원봉사가 효과적 수단으로 다시금 공식화되고 있다(UN, 2015; UNV, 2016).

한국 역시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통해 자원봉사는 공식적으로 활성화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 어느 국가보다 짧은 기간에 다양한 시민참여 유형에 직접 관여하는 여러 수준의 정책결정을 이루어왔다는 특징이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6)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협동조합기본법(2012), 최근 지역 단위 마을 만들기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참여를 견인하고자 하는 여러 공식적 제도들이 공존하는 공간이 한국의 시민사회이다(박상필, 2015). 이 시기에 이어 나눔기본법안(2013), 최근의 시민사회발전법안(2018) 등 정책결정의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입법·사법·지방자치단체에 결합되는 공식적 시민참여제도, 비공식적인 정치참여들 역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병행하여 질적·양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곽현근, 2015; 김은이, 2015; 정정화 외, 2015; 황용석 외, 2016).

이러한 환경의 한국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보자.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하던 개인이 어느 날 동네 주민자치센터가 가보니 마을만들기 사업을 새로 소개해주어 마을활동가를 겸할 수도 있고(이재완, 2014), 착한 자원봉사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건물주로서 나에게 경제적 이익도 되는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거나(전병혜 외, 2017),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니 별 부담 없이 정부에 정책적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도 겸하거나 현실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정치참여에만 몰입할 수 있고(강내원, 2004), 그 어떤 다른 시민참여 활동도 하지 않고 자원봉사 활동만 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두고 이러한 다양한 시민활동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시민사회 생태계 내 시민참여 종(種)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전에 없는 새로운 종을 시민사회 생태계에 이식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행 과정에서 민간으로 유입되는 자원이 시민들의 행동변화에 영향(Carroll & Calabrese, 2017; Luksetich, 2008)을 미치는 등, 시민사회 생태계 내 존재하는 어떠한 시민참여활동도 고립적으로 성장·퇴화할 수 없는 환경(Anheier, 2010; Fung, 2006)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시민활동이 펼쳐지는 현실적 풍경이다.

이러한 가운데, 만일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면, 고립적으로 단순히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만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다분된 시민참여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원봉사참여 양상에 주목해야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확률과 영향 요인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참여자 중심 자원봉사 유형화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대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개념화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원봉사 개념과 유형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연구자들에 도전적 과제가 되어 왔다(Carson, 1999; Hustinx et al., 2010; Husinx, 2010; Wilson, 2000).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대개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방식과 다르지 않게 자원봉사 활동의 대상이나 영역을 중심으로 노인자원봉사, 환경자원봉사 등으로 구분하는 데 그쳐 학술적으로 유용한 자원봉사 분류체계가 생산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Huxint et al., 2010:3). 한편, 자원봉사 개념 논의들 역시 주로 무보수성, 자발성, 비정치성 등 자원봉사를 다른 활동과 구분하는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를 한다(이용환 외, 2013; Hodgkinson, 2003; Lyons et al., 1998). 다른 실체와 구분하는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은 자원봉사에서만 아니라 전통적인 시민참여 유형화에서도 지배적으로 적용되는 관점이다(전영평 외, 2007; Arnstein, 1969; Ekman & Amna, 2012; Zimmerman, 1986; Sabucedo & Arce, 1991). 이와 관련하여 정작 자원봉사가 현실의 실제 맥락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Wilson, 2012).

자원봉사에 대한 기존 유형화나 개념화 방식이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실제 한 개인이 맥락화되어 있는 시민참여 환경 속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유형화 방식은 단일성(homogeneity) 중심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와 달리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다른 시민참여와 결합된 혼종으로 존재한다는 이질성(heterogeneity) 중심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무엇을 기준으로 다른 것과 구분하여 자원봉사로 인식할 수 있는가의 인식론적 구분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대로의 생생한 존재 양상에 보다 근접하여 파악하는 존재론적 접근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다(Wolfram, 2012 참조).

최근 몇몇 해외연구들은 참여자 개인 입장에서 여러 구분되는 시민참여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으로서의 시민참여활동을 새롭게 유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Finlay et al., 2011; Oser et al., 2013; Reichert, 2017; Voigh & Torney-Purta, 2013; Weerts et al., 2014). 그런데 자원봉사 유형화는 아직 이러한 시도가 드물다. 자원봉사연구에서도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구사되는 자원봉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Hustinx, 2010), 아직 실증적 분석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통해 자원봉사참여활동이 다른 유형의 시민참여활동과 결합되어 어떠한 구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RQ1. 자원봉사활동은 다른 시민참여활동과의 결합에 따라 몇 개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유형마다 어떠한 결합 특성을 갖는가?

3. 자원봉사 영향요인: 자원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음으로 본 연구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민참여 활동과의 결합 관계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유형화에서 더 나아가 자원봉사참여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과 유형별 결과이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 참여 유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파악과 다른 시민활동과의 결합 속에서 도출된 자원봉사 참여 유형별 자원봉사 참여 정도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개인, 이웃, 가족, 지역, 국가, 정책 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개인·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활동이다. 그 중 개인이 보유하는 ‘자원(resource)’과 ‘네트워크(network)’는 여러 연구들에서 높은 설명력을 갖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Einolf & Chambré, 2011; Willems & Dury, 2017; Wilson & Musick, 1997; Wilson, 2000; Wilson, 2012),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Willems & Dury, 2017).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개인의 자원봉사참여를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러 자원 중 개인의 시간과 기술 혹은 교육이라는 두 요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자원봉사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ilson, 2012; Einolf & Chambré, 2011; Dury et al., 2014). 이는 경제학에서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라, 자원봉사참여는 경제적 보상에서 자유로운 행위이지만 실제 행위는 보이지 않는 참여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개인의 자원 보유 정도에 따라 참여비용 부담능력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설명된다(Lee & Brudney, 2010). 기존 연구들에서 여러 유형의 자원 중 물질적 자원(가구소득 등)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거나 불일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분석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Wilson, 2000).

사회결속이론(social integration theory)은 자원봉사참여가 참여자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가족, 친구, 단체, 종교활동 등을 통해 개인이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요하게 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나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Bekkers, 2005; Lee & Brudney, 2010; Forbes & Zampelli, 2014; Okun et al. 2007; Paik & Navarre-Jackson, 2011; Rotolo & Wilson, 2007; Park & Smith, 2000; Wymer, 1997). 따라서 가족이라는 개인적 관계, 여러 단체 참여나 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역시 한 개인이 자원봉사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Lee & Brudney, 2010).

본 연구는 자원봉사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온 자원요인(시간·기술·소득), 네트워크 요인(개인·사회적 관계)이 다른 유형의 시민참여활동과의 결합 관계를 통해 새롭게 유형화된 자원봉사참여 유형(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 영향 요인이 바로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미치는 차이가 아니라 다른 시민참여 활동과 결합된 새로운 자원봉사 참여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 자원봉사 참여 정도가 나타날 것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RQ2. 시민참여와 결합된 자원봉사참여 유형에 자원과 네트워크 요인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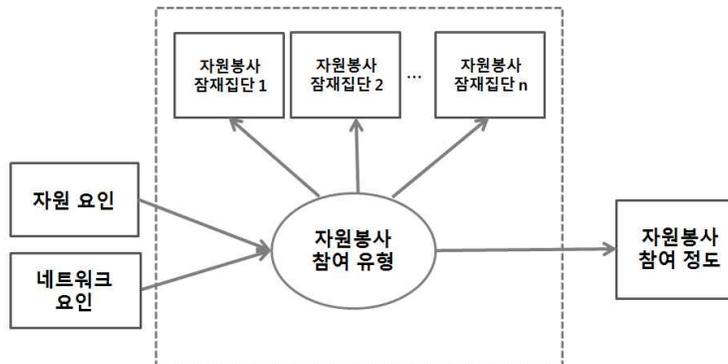
Ⅲ. 연구 설계

1. 연구설계와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질문을 분석한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다른 유형의 시민참여활동과의 관계에 따라 몇 개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유형별로 자원봉사는 다른 시민참여활동과 어떠한 결합 특성을 갖는가? 둘째, 시민참여와 결합된 자원봉사참여 집단들의 영향 요인은 무엇이며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앞서 설정된 두 개의 연구질문 분석에 적용할 분석방법은 혼합모형(mixture model)(〈그림 1〉 참조)이다. 혼합모형은 관찰변수에 근거한 유형화, 즉 잠재된 집단을 도출하는 확률적 군집방법이다. 혼합모형은 일반 통계에서 추정하는 어떠한 계수에 대해서도 집단의 분류가 가능하며, 기존 기술적인 군집분석에 비해 사후집단 귀속 확률에 근거하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홍세희, 2018 참조). 모집단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혼합분포를 가정하고 그 양상을 탐색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이 특징이다(Muten, 2002).

〈그림 1〉 연구모형



특히 본 연구는 가용한 관찰변수 측정 자료 제약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다른 유관 시민 참여 여부라는 이분형 문항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본 분석은 단지 개별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다른 유형의 시민참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계층모형을 확장하여 영향변수와 결과변수를 추가하는 분석을 실행할 것이다. 도출된 잠재계층을 중심으로 독립·종속변수를 추가하여 원인·결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인변수(영향요인) 분석은 R3STEP을, 잠재계층별 자원봉사 참여 정도라는 결과변수 분석은 BCH을 적용하였다(Asparouhov and Muthen, 2014; Bakk and Vermunt, 2016). 분석에는 Mplus 8.0이 활용될 것이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분석은 서울시의 ‘서울서베이(2017)’를 활용하였다. 표본추출은 2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를 표집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과 과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모집단을 설정하고 있다(서울시, 2017). ‘서울서베이(2017)’는 2016년의 현황으로 서울거주 2만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45,609명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서베이(2017)’는 통계청 사회조사 등 다른 전국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최근의 정책지원 시민참여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시민참여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자료가 비록 한국 전체를 포괄할 수 없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보다 부합하는 종단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가 아니라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극복하는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해당 자료가 가장 본 분석의 목적과 연구질문에 적합한 자료로 파악된다.

자원봉사 유형화에 투입될 지표변수는 자원봉사, 단순문의, 민원정책제안, 정책참여(마을만들기, 공유도시 등), 정치사회참여, 선거투표라는 여섯 가지 시민참여활동이다. 이 중 민원정책제안은 원자료의 민원제기와 정책제안을, 정치사회참여는 원자료의 정치사회적 의견 개진과 집회·시위를 통합한 것으로, 도출될 모델의 간명성과 정책적 함의 도출에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참여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원인변수는 두 가지로 자원 요인과 네트워크 요인이다. 자원 요인은 시간 자원, 기술 자원, 물질 자원으로, 시간자원은 고용상태에 따른 전일제 여부로, 기술자원은 학력 정도, 물질 자원은 가구소득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요인은 가구구성원의 수와 단체 참여로 측정하였다. 가구 구성원 수는 원자료의 비율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단체 참여는 자료가 측정한 11개 유형의 단체에 적어도 하나 참여의 경우 1, 전무한 경우를 0으로 산출하였다.

결과변수는 자원봉사 참여 정도로서 실제 참여했는가의 여부와 참여 빈도, 향후 참여 의향이라는 세 가지 다른 측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 참여 여부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유무로, 빈도는 원자료의 비율변수, 향후 참여 의향은 향후 전혀 참여 의향 없음(4)에서 꼭 참여하겠다는 의향(1) 간 4점 리커트 척도 측정값을 활용하였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은 분석결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역산 투입되었다. 통제변수로는 나이, 성별, 거주유형, 건강상태, 신뢰(일반, 가족, 이웃, 공공), 종교 보유 여부를 투입하였다(〈표 1〉 참조).

〈표 1〉 변수 측정 방식과 자료출처

변수구분	측정문항	측정자료
지표 변수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시민참여에 대한 경험의 유무 (0: 없음, 1: 있음): ①자원봉사, ②단순문의, ③민원정책제안, ④정치사회참여, ⑤정책참여(마을만들기, 공유도시 등), ⑥선거투표	2017서울서베이
원인 변수	자원 요인(시간, 기술, 소득): 기술-교육수준(1: 무학~9:대학원 박사과정), 시간-근로 유형 (1: 전일제, 0: 시간제 및 기타), 소득: 가구소득(지난 1년 월평균 총 가구소득/1: 50만원 미만~19:900만원 이상) 네트워크 요인: 가구원수 (비율변수), 단체 참여 여부 (0: 없음, 1: 있음)	2017서울서베이
결과 변수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정도 : ①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여부(0: 없음, 1: 있음), ②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빈도 (비율변수), ③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1-4 리커트 척도, 1: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4: 꼭 참여하겠다)	2017서울서베이
통제 변수	나이 (15세 이상, 비율변수), 성별 (0: 여, 1: 남), 거주유형 (0: 무주택, 1: 자기집), 건강상태 (1-10 리커트 척도), 일반신뢰(1-4 리커트 척도), 가족신뢰(1-5 리커트 척도), 이웃신뢰(1-5 리커트 척도), 공공신뢰(1-5 리커트 척도), 종교 여부(0: 무교, 1: 종교 보유)	2017서울서베이

IV.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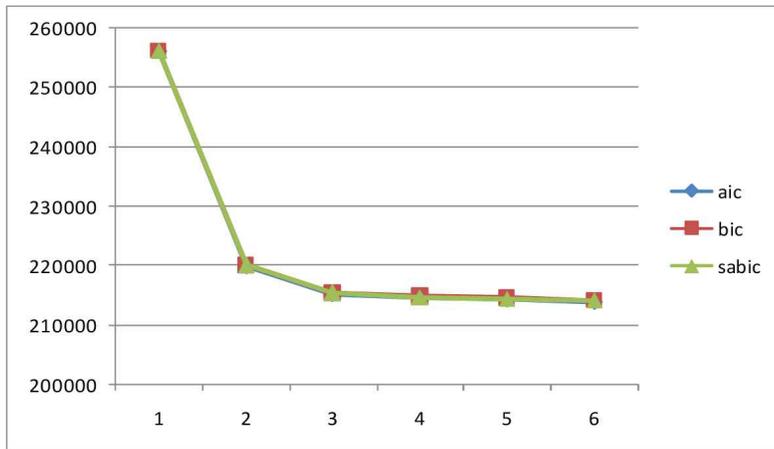
1. 다른 시민참여와의 결합에 따른 자원봉사 잠재계층(연구질문1)

자원봉사 잠재 계층을 도출하기 위해 본 분석은 AIC, BIC, SABIC(조정된 BIC) 지수를 검토하였으며, LMR 검증을 실행하였다. 이어 분류의 질(Entropy), 잠재계층 비율, global maxima를 확인하였다. 여섯 개의 잠재계층 모델을 순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LMR은 여섯 개의 잠재 계층의 수까지 유의하게 나타나 여섯 개 잠재계층까지의 각 모형들이 다음 모형 대비 적합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분류의 질을 보여주는 Entropy는 세 개의 잠재계층모형까지 모두 .80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했다. 그러나 AIC, BIC, SABIC 지수가 세 개의 잠재 계층 모델까지만 감소를 보였고, 네 개부터는 적합도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참조). 이에 잠재 계층이 세 개로 구성되는 모델의 비율을 확인할 결과 각 잠재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3.6, 17.3, 69.2 퍼센트였다. 마지막으로 잠재 계층의 수가 세 개인 모델의 적합성이 global maxima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른 시민활동과 결합되는 자원봉사 유형은 세 개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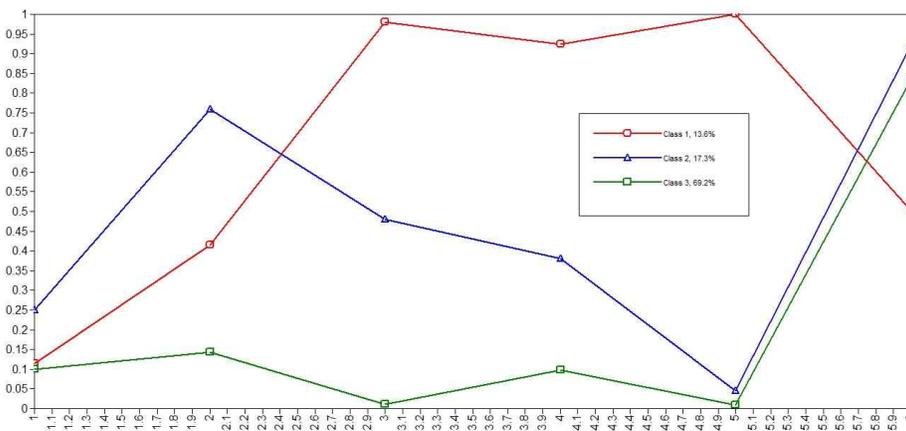
〈표 2〉 잠재 계층 수의 결정을 위한 통계적 검증

잠재계층 수	AIC	BIC	SABIC	LMR	ENTROPY
1	256173.643	256225.613	256206.545	-	-
2	219981.700	220094.302	220052.987	7337.899	0.940
3	215244.343	215417.576	215354.016	1619.831	0.802
4	214644.976	214878.841	214793.034	950.989	0.846
5	214310.728	214605.224	214497.172	554.981	0.756
6	213908.656	214263.784	214133.485	157.010	0.730

〈그림 2〉 잠재계층 수에 따른 AIC, BIC, SABIC 지수 변화



〈그림 3〉 3개의 잠재계층별 자원봉사-시민활동 결합양상



(1: 자원봉사, 2: 단순문의, 3: 민원·정책제안, 4: 정치사회참여, 5: 정책참여, 6: 투표)

다른 시민참여활동과 결합하는 자원봉사 참여 첫 번째 잠재 계층은 투표나 단순문의보다 민원·정책제안, 정치·사회참여, 정책참여를 주로 하면서 자원봉사도 낮은 수준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LC1). 첫 번째 잠재계층은 13.6%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잠재 계층은 반대로 정치사회정책 참여는 거의 하지 않고 단순문의와 투표를 더 많이 하면서 자원봉사 참여 수준이 낮은 유형의 그룹이다(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LC2). 이들은 약 17.3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잠재 계층은 가장 많은 69.2%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으로 투표 참여에 가장 적극적이고 자원봉사 포함 다른 시민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유형이다(투표 위주 자원봉사, LC3). 이들 세 가지 잠재계층은 각각 자원봉사 참여는 다른 시민활동 대비 모두 저조하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이 다른 시민활동들과 병행하여 실행되고 있는 양상이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된다.

〈표 3〉 잠재 계층 비율과 특성

구분	수	비율	자원봉사-다른 시민활동 결합 유형
잠재계층 1(LC1)	5791	0.13568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잠재계층 2(LC2)	7375	0.17278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잠재계층 3(LC3)	29519	0.69154	투표 위주 자원봉사

2. 자원봉사 잠재계층에 대한 원인·결과변수 검증(연구질문2)

그렇다면, 다른 시민참여활동과의 결합 관계에 따라 유의하게 구분되는 자원봉사 유형은 자원과 네트워크 요인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 두 번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은 결과변수와 원인변수 검증 두 가지로 실행되었다. 결과변수는 자원봉사 참여 여부와 빈도,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 세 가지가 투입되었다. 잠재계층에 대한 원인변수는 자원과 네트워크 영향 요인이 분석되었다.

결과변수 검증 첫 번째로 자원봉사 잠재계층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정도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여부로 측정되었으며,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LC2)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투표 위주의 자원봉사(LC3) 그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LC1)은 중간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여부 중심의 자원봉사 참여 확률의 차이는 세 잠재계층 간 비교와 각 잠재 계층 사이 비교에서 모두 유의했다.

자원봉사 참여 빈도를 통해 측정된 자원봉사 참여 정도 역시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LC2),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LC1), 투표 위주의 자원봉사(LC3)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참여 빈도 차이 역시 전체 비교와 그룹 간 비교 모두에서 유의했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을 통해 측정된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인 그룹은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LC2)였다. 그러나 가장 낮은 참여 의향은 투표 위주가 아닌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그룹(LC1)로 현재 참여 여부나 빈도와 다른 순서를 보였다.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은 전체 비교와 잠재계층 간 비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재 참여 정도와 향후 참여 가능성이 모두 가장 높은 잠재계층은 단순

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그룹(LC2)이었으며, 현재는 참여 정도는 중간 수준이나 향후 참여 가능성이 낮은 잠재계층은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LC1), 현재 참여 정도는 가장 낮지만 향후 참여 가능성은 LC1보다는 양호한 잠재 계층은 투표 위주 자원봉사 그룹(LC3)이었다.

〈표 4〉 자원봉사 잠재계층 간 자원봉사 참여 정도 수준 비교

구분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 빈도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C1(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0.101	0.004	0.461	0.050	2.044	0.008
LC2(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0.385	0.008	2.036	0.153	2.763	0.153
LC3(투표 위주 자원봉사)		0.069	0.002	0.303	0.026	2.345	0.005
구분				X^2		p-value	
자원봉사 참여 여부	<i>overall</i>			1384.474		0.000	
	LC1(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vs. LC2(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1018.678		0.000	
	LC1(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vs. LC3(투표 위주 자원봉사)			46.149		0.000	
	LC2(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vs. LC3(투표 위주 자원봉사)			1384.401		0.000	
자원봉사 빈도	<i>overall</i>			106.880		0.000	
	LC1(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vs. LC2(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90.244		0.000	
	LC1(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vs. LC3(투표 위주 자원봉사)			8.325		0.004	
	LC2(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vs. LC3(투표 위주 자원봉사)			106.247		0.000	
자원봉사 향후 참여 의향	<i>overall</i>			2469.991		0.000	
	LC1(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vs. LC2(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2235.837		0.000	
	LC1(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vs. LC3(투표 위주 자원봉사)			1022.652		0.000	
	LC2(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vs. LC3(투표 위주 자원봉사)			826.560		0.000	

원인변수 검증에 해당하는 잠재계층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자원 요인과 네트워크 요인으로 자원 요인이 잠재계층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으며, 자원요인으로 시간, 소득, 기술(교육)이 네트워크 요인으로 가구원수와 단체참여 여부가 투입되었다.

소득 수준은 다른 두 잠재 계층 대비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LC2)에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높였다. 그러나 소득 수준은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LC1)과 투표 위주 자원봉사(LC3)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한편, 교육 수준은 다른 두 잠재 계층 대비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LC2)에 속할 확률과 투표 위주 자원봉사(LC3) 대비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LC1)에 참여할 확률을 유의하게 높였다. 그러나 시간 자원은 세 개의 잠재 계층에 속할

확률에 있어 비교에서 아무런 차이를 주지 못했다.

가구원수는 투표 위주 자원봉사 그룹(LC3) 대비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그룹(LC2)에 참여할 확률을 낮추었으나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LC1) 대비 투표 위주 자원봉사(LC3)에 속할 확률은 높였다. 한편 가구원수는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LC2)와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LC1) 간 차이에 변별력을 주는 변수는 아니었다. 단체참여 정도는 모든 자원봉사 잠재계층 간 비교에서 모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단체 참여를 많이 할수록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LC2) 대비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LC1)에 속할 확률을 높였고 투표 위주 자원봉사(LC3) 대비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LC2)에 참여할 확률을 높였다. 또한 활발한 단체 참여는 투표 위주 자원봉사(LC3) 대비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LC1) 그룹에 참여할 확률 역시 높였다.

〈표 5〉 자원봉사 잠재계층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변수	LC2(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vs. LC1(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LC2(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vs. LC3(투표 위주 자원봉사)		LC3(투표 위주 자원봉사) vs. LC1(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원인 변수	시간	0.015	0.052	0.088	0.044	-0.073	0.040
	소득	0.075***	0.007	0.079***	0.006	-0.003	0.006
	교육	0.345***	0.026	0.242***	0.021	0.103***	0.019
	가구원수	-0.045	0.030	-0.153***	0.025	0.107***	0.023
	단체참여	-1.498***	0.140	1.036***	0.070	-2.534***	0.122
통제 변수	주거형태	-0.214***	0.055	0.036	0.045	-0.250***	0.042
	일반신뢰	1.545***	0.038	-0.141***	0.031	1.686***	0.029
	가족신뢰	-0.099*	0.048	-0.322***	0.040	0.223***	0.036
	이웃신뢰	-0.111**	0.037	-0.077**	0.030	-0.033	0.028
	공공신뢰	-1.148**	0.035	0.063*	0.027	-1.211***	0.028
	종교	0.160**	0.048	0.333***	0.040	-0.173**	0.036
	건강상태	-0.230***	0.020	0.028	0.015	-0.258***	0.015
	나이	-0.006**	0.002	-0.007***	0.002	0.001	0.002
	성별	0.223**	0.068	0.014	0.059	0.209***	0.049

V. 결론

본 연구는 다른 시민참여 활동과의 결합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들 유형 간 자원봉사 참여 정도가 다른지, 유형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7년 서울서베이 조사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모형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원

봉사 참여자들이 병행하는 다른 시민참여 활동과 자원봉사의 결합에 체계적 양상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활동에서 세 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이들이 모두 같은 단일한 활동이 아니라 참여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병행하는 다른 시민참여 활동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자원봉사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개의 자원봉사 잠재계층은 민원·정책제안, 정치·사회참여, 정책참여를 주로 하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유형(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정치사회정책 참여는 거의 하지 않고 단순문의와 투표를 주로 하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유형(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투표 참여에만 적극적인 자원봉사 유형(투표 위주 자원봉사)으로 구분되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은 투표 위주 자원봉사자가 차지하였으며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자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들 자원봉사 참여 유형들은 각각 결과로서 다른 자원봉사 참여 정도를 가져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원봉사 참여 정도가 가장 높은 자원봉사 유형은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잠재 계층이었는데, 해당 유형은 자원봉사 참여 여부, 빈도,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 모두에서 가장 우세한 자원봉사 잠재 계층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낮은 자원봉사 참여 정도는 투표 위주의 자원봉사 활동이었지만,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은 정치사회정책 참여 위주 자원봉사 잠재 계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변수 중심으로 단순한 참여 여부에 의해 단일한 참여 상태로 간주되었던 자원봉사활동이 실제로는 그 안에 다른 시민활동과의 병행 양상에 따라 이질적으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여러 자원봉사 참여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주는 새로운 발견이며, 자원봉사 참여 제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이러한 이질적인 세부 자원봉사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른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 연구나 정책 개발이 자원봉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봉사 참여 환경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시민활동과의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실제 참여 정도나 참여 의향 면에서 모두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그룹(LC2)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해당 유형의 자원봉사 활동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자원 요인에서 소득과 교육 수준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참여 제약이 되는 시민들의 경우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낮추는 다른 유형의 자원봉사 활동 유형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정책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제적 지원 혹은 교육훈련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인구사회학적 그룹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투표 위주 자원봉사자들이 단체 참여를 보다 활발히 하게 되면 단순문의·투표 위주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 시 다양한 단체 활동을 결합하는 방법 역시 현장에서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에 유의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오늘날 다변화되는 시민참여 환경과 특히 정부-시민사회 협력 속에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들의 참여 증가 현상을 고려할 때, 정부정책 참여나 민원·정책 제안을 활발히 하는 정치사회정

책참여 자원봉사 그룹(LC1)은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해야 할 자원봉사자들에 해당한다. 이들 그룹은 투표 혹은 정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문의하는 정도로 시민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그룹보다 정부, 사회, 지역 참여에 훨씬 적극적인 그룹이지만 자원봉사 참여 정도는 낮다. 특히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가장 낮아 점차 자원봉사 활동에서 이탈해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정책이나 시민사회 자원봉사섹터는 시민사회 다른 섹터, 마을만들기, 공유경제 등 정부의 다른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별 법률이나 조례를 중심으로 점차 분절되어 가는 정부지원 시민·주민참여 현장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다른 시민활동 영역들의 행위자들 간 협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새로운 발견과 자원봉사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이 다 담지 못한 후속 연구과제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자원봉사와 함께 병행되고 있는 더 다양한 시민활동 유형들이 분석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본 분석에 투입된 자원봉사 외 다른 시민참여 활동 각각의 세세한 특성과 실제 실행 방식에 대한 고려 등이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자원봉사를 중심에 둔 분석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자원봉사 및 시민참여 유형화 연구가 축적되면서 보다 정교한 가설 도출까지 이를 수 있는 심층적인 이론적 고찰 및 이론 정립 또한 과제라 여겨진다. 특히 정치사회 정책 참여 위주의 자원봉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여러 지역 개발, 마을만들기,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섹터의 협력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결합이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될 필요를 제안해 본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보다 다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 잠재 계층분석을 탐색적으로 시도하며 주로 자원과 네트워크 요인만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기존 자원봉사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후속 연구에서 새롭게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활동은 지역과 문화의 특수성, 시민사회 발전 경로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국제비교 연구로 확장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내원. (201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3): 116-143.
- 곽현근. (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279-302.
- 김은이. (2015). SNS(트위터, 페이스북)가 시민·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미 비교 연구. 「정치 커뮤니케이션연구」, 37: 81-113.
- 박상필. (2015).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역할. 「NGO연구」, 10(2): 35-58.
- 서울시. (2017). 「서울서베이 2017 리포트」.

- 이재완.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4): 409-437.
- 전병혜·송혜승·이명훈. (2017). 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4): 155-181.
- 전영평·홍성만·김선희. (2007) 시민참여 유형분류를 통한 참여성과 분석. 「행정논총」, 45(1): 193-220.
- 정정화·은재호·남재걸. (2014). 한국행정의 주민참여 정책과정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4): 161-185.
- 통계청. (2017). 「사회조사 2017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18).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
- 홍세희. (2018). 「잠재계층모형과 성장혼합모형」. 박영사.
- 황용석·이현주·박남수. (2016). 디지털 시민성의 위계적 조건이 온·오프라인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2): 493-520.
- Anheier, Helmut, K. (2010). *Nonprofit Organizations - Theory, Management, Policy*. New York: Routledge.
- Muthen, Bengt, & Tihomir, Asparouhov.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 ~ 341.
- Bakk, Zsuzsa, & Jeroen K. Vermun. (2016). Robustness of Stepwise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ntinuous Distal Outcom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3(1): 20 ~ 31.
- Bekkers, René. (2005).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Relations with Resources, Personality, and Political Values. *Political psychology*, 26(3): 439-454.
- Carroll, Deborah A., & Thad, D. Calabrese. (2017). Intersecting Sectors?: The Connection between Nonprofit Charities and Government Spending. *Journal of Public and Nonprofit Affairs*, 3(3): 247-271.
- Carson, Emmett, D. (1999). On Defining and Measuring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2(4): 67-72.
- Cnaan, Ram A., & Laura, Amroffell. (1994). Mapping Volunteer Activit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4): 335-51.
- Cruikshank, Barbara. (1999).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US: Cornell University Press.
- Dury, Sarah, De Donder, L., De Witte, N., Buffel, T., Jacquet, W., & Verté, D. (2015). To Volunteer or Not: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sources, and Social Factors on the Likelihood of Volunteering by Older Adult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4(6): 1107-1128.
- Einolf, Christopher, & Susan, M. Chambré. (2011). Who Volunteers? Constructing a Hybrid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6(4):

298-310.

- Ekman, Joakim, & Erik, Amnå(201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Towards a New Typology. *Human Affairs*, 22: 283-300.
- Eliasoph, Nina.(2013). *The Politics of Volunteering*. US: Polity.
- European Commission. (2012). *EU Policy and Volunteering*.
- Finlay, Andrea K., Constance, Flanagan, Laura & Wray Lake. (2011). Civic Engagement Patterns and Transitions over 8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47(6): 1728-1743.
- Forbes, Kevin F., & Ernest, M. Zampelli (2014). Volunteerism: The Influences of Social, Religious, and Human Capital.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3(2): 227-253.
- Fung, Archon. (2006). Varieties of Participation in Complex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66-75.
- Haski-Leventhal, Debbie, Lucas CPM Meijs, & Lesley, Hustinx (2009). The Third-Party Model: Enhancing Volunteering through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es. *Journal of Social Policy*, 39(1): 139-158.
- Hodgkinson, Virginia A. (2003). Volunteering in Global Perspective. In P., Dekker & L. Halman(Eds.), *The Values of Volunteering*(pp. 35-53). Boston: Springer.
- Holmes, Kirsten. (2009). Volunteering, Citizenship and Social Capital: A Review of UK Government Policy. *Journal of Policy Research in Tourism, Leisure and Events*, 1(3): 265-269.
- Hilton, Matthew. (2012). *A Historical Guide to NGOs in Britain: Charities, Civil Society and the Voluntary Sector since 1945*. Palgrave Macmillan.
- Hustinx, Lesley. (2010). Institutionally Individualized Volunteering: Towards a Late Modern Re-construction. *Journal of Civil Society*, 6(2): 165-179.
- Hustinx, Lesley, Ram A. Cnaan, & Femida, Handy.(2010). Navigating Theories of Volunteering: A Hybrid map for a Complex Phenomeno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40(4): 410-434.
- Inglehart, Ronald. (2003). Modernization and Volunteering. In P. Dekker & L. Halman(Eds.), *The Values of Volunteering*(pp. 55-70). Springer, Boston, MA.
- IVCO(2017). Implementation of the SDGs through Transformative Scholarship in Volunteering.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Volunteer Cooperation Organizations(October 22-25), Seoul, South Korea.
- Musick, Marc A., & John Wilson. (2008). *Volunteers: A Social Profile*.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Muthén, Bengt O. (2002). Beyond SEM: General Latent Variable Modeling. *Behavior Metrika*, 29(1): 81-117.
- Lee, Y. J., & Brudney, J. L. (2010). Rational Volunteering: A Benefit-cost Approach.

-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9: 512-530.
- Lyons, Mark, Philip Wijkstrom, & Gil Clary. (1998). Comparative Studies of Volunteering: What is Being Studied. *Voluntary Action*, 1(1): 45-54.
- Lucio, Joanna.(2009). Customers, Citizens, and Residents: The Semantics of Public Service Recipients. *Administration & Society*, 41(7): 878-899.
- Luksetich, William. (2008). Government Funding and Non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37(3): 434-442.
- Okun, Morris A., John Pugliese, & Karen S. Rook. (2007). Unpacking the Relation between Extraversion and Volunteering in Later life: The Role of Social Capita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8): 1467-1477.
- Oser, Jennifer, Marc Hooghe, & Sofie Marien. (2013). Is Online Participation Distinct from Offline Participation? A Latent Class Analysis of Participation Types and their Stratific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6(1): 91-101.
- Paik, Anthony, & Layana, Navarre-Jackson. (2011). Social Networks, Recruitment, and Volunteering: Are social Capital Effects Conditional on Recruitmen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3): 476-496.
- Park, Jerry Z., & Christian, Smith. (2000). 'To Whom Much Has Been Given...': Religious Capital and Community Voluntarism Among Churchgoing Protestan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9(3): 272-286.
- Reichert, Frank. (2017). Young Adults' Conceptions of 'Good' Citizenship Behaviours: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Civil Society*, 13(1): 90-110.
- Rotolo, Thomas, & John, Wilson. (2007). The Effects of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on the Volunteer Work of American Wome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3): 487-503.
- UN. (2015). UN Resolution 70/129: Integrating Volunteering into Peace and Development.
- UNV. (2015). Volunteering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Voight, Adam, & Judith, Torney-Purta. (2013). A Typology of Youth Civic Engagement in Urban Middle School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7(4): 198-212.
- Weerts, David J., Alberto F. Cabrera, & Paulina, Pérez Mejías. (2014). Uncovering Categories of Civically Engaged College Students: A Latent Class Analysi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37(2): 141-168.
- Willems, Jurgen, & Sarah Dury. (2017). Reasons for Not Volunteering: Overcoming Boundaries to Attract Volunteers.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37(11-12): 726-745.
- Wilson, John.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 Wilson, John. (2012). Volunteerism research: A review essa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1(2), 176-212.
- Wilson, John, & Marc Musick.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4-713.
- Wolfram, Marc. (2012). Deconstructing Smart Cities: An Intertextual Reading of Concepts and Practices for Integrated Urban and ICT Development. In M. Schrenk, V.V., Popovich, P., Zeile, & P. Elisei(Eds.), *Proceedings REAL CORP 2012 Tagungsband*.
- Wymer Jr, Walter W. (1997). A Religious Motivation to Volunteer? Exploring the Linkage between Volunteering and Religious Values.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5(3): 3-17.

송정안(宋庭安): 광운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주민자치(자치행정), 비영리·사회적 경제, 사회통합·갈등관리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와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2016), '영국의 자원봉사제도 변화(1998-2013)에 관한 연구'(2017, 2인 공저 제1저자), '4차 산업혁명과 사회통합: OECD 회원국 종단분석(2006-2015)'(2018), 'NIMBYism,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2018) 등이 있다(jaro2000@naver.com).

Abstract

Identifying Latent Classes of Volunteering in Relation to Other Civic Engagement Behaviors and Testing Determinants and Results of the Classes

Song, Jeong An

This paper explored how volunteering is related to other types of civic engagement behaviors and what are the determinants and results of the relationships. To examine these research questions, latent class model(LCM) was applied to the Seoul Survey(2017). The results showed that three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volunteering with socio-political civic engagement, volunteering with voting and administrative inquiry, volunteering with voting). Volunteering with voting and administrative inquiry showed the highest degree of volunteering participation rates among three classes and education, income, and social network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class. Finally,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volunteering, civic engagement, volunteering typology, latent class model